

<제9강>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 설 >

원칙 : 표준 발음은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

조건 : 서울말의 발음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한다.

예) 국어의 장음은 젊은 세대에서 변별적 기능을 지니지 못하지만, 국어가 성조와 장단을 비변별적 음운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성을 고려하여 장모음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구별하게 하였다. 그런데 단음절로 이루어진 장모음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단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칙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를 표준발음으로 정한 것은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맛있다’의 발음은 [마덜따]가 원칙이지만, [마실따]도 표준발음으로 인정한 것도 합리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제2장 자음과 모음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ㅠ ㅡ ㅣ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다만, ‘ㅜ,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 해 설 >

1. 현대국어에서 ‘ㅈ, ㅊ’은 경구개음이기 때문에 단모음과 결합하든 ‘y’상향이중모음과 결합하든 비변별적이 된다. 즉, ‘자 [tʃya] → tsyya → tsya [자]’가 된다.
2. ‘ㄴ/의’의 발음
 - 1) 첫소리로 자음을 가진 ‘ㄴ’는 [ㄴ]로 발음
닐리리[닐리리], 희망[히망]
 - 2) 한 단어 안에서 2음절 이하의 ‘의’는 [이]로 발음 허용
주의 [주의/주이]
 - 3) 조사 ‘의’는 [에]로 발음 허용
나의[나의/나에], 책의[책기/책게]
 - 4) 규정되지 않은 어두에서는 제 음가대로
의사[의사], 의의[의의/의이]

제3장 소리의 길이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1) | 눈보라[눈:보라] | 말씨[말:씨] | 밤나무[밤:나무] |
| | 많다[만:타] | 멀리[멀:리] | 벌리다[벌:리다] |
| (2) | 첫눈[천눈] | 참말[참말] | 쌍동밤[쌍동밤] |
| | 수많이[수:마니] | 눈멀다[눈멀다] | 떠벌리다[떠벌리다] |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 | | |
|--|---------------|
| 반신반의[반:신 바:늑/반:신 바:니] | 재삼재사[재:삼 재:사] |
|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
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

- | | | |
|----------|----------|----------|
| 보아→봐[봐:] | 기어→겨[겨:] | 되어→돼[돼:] |
| 두어→뒤[뒤:] | 하여→해[해:] | |

다만,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해 설 >

1. 현대국어의 비분절음운에는 단어의 음장(音長)과 문말(文末)의 억양이 있다.
(다만, 영남 방언과 영동 방언은 아직 성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음장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변별성을 지닌다. 국어의 변별적 장음은 어두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예) 말이 많다. [마리 만타.(馬)/ 마 :리 만타.(言)]
 - 2) 어휘적 변별성을 가지지 않는 장음으로 표현적 장음이 있다. 표현적 장음은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고 비어두에서도 실현된다.
예) ㄱ. 문을 살짝 연다.(살짝)
 ㄴ. 문을 사알짝 연다.(살 :짝)
 ㄷ. 문을 사아아알짝 연다. (살 : :짝)
 - 3) 문말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성조와 유사하지만, 어휘적 변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어에서 문말의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ㄱ. 다희 : 우리 언제 만날까?(↗)
 만익 : 일요일.(↘)
 다희 : 일요일?(↗) 일요일은 바쁜데.(↘)
 ㄴ. 어디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2. 중세국어는 성조언어였다. 즉, 소리의 높낮이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었다. 그러나 근대국어에서 높낮이가 소멸하게 되었다.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장음은 중세국어의 상성이 가지고 있던 잉여적인 장음이 현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서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복합이었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길이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근대국어에 들어와서 소리의 높낮이가 소멸하자 비변별적이었던 소리의 길이가 현대국어로 이어지면서 변별적인 기능을 얻게 되었다.
3.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장음은 '보상적 장음'이라 한다. 음소가 줄어들거나 음절이 줄어들 때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이 실현된다. 그러나 이 현상은 필연적 현상은 아니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밧다[밧:따]-밧으면[밭븐면]
 신다[신:따]-신어[시너] 알다[알:다]-알아[아라]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 | |
|-----------------|-----------------|
| 끝다[끝:다]-끝어[끄:러] | 뺨다[뺨:다]-뺨은[뺨:븐] |
| 벌다[벌:다]-벌어[버:러] | 썰다[썰:다]-썰어[써:러] |

없다[업:따]-없으니[업: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밥:따]-밟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업:쌌다]

[붙임] 다음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 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쓴-살-같이 작은-아버지

< 해 설 >

1. 장음을 가진 용언의 어간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사·피동접미사가 결합하면 소리의 길이를 잃어버리는 어간 - 규칙적인 현상
 - 2) 늘 장음을 유지하고 있는 어간(끌-, 벌-, 없-).
2.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상성을 가진 어간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성조가 바뀌는 예들이 있었다. 예) :앗·디 → 아·샤, :돕·논 → 도·박, :알·면 → 아·라
이런 예들은 현대국어의 장음이 중세국어의 상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제4장 받침의 발음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스, ㅍ,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닭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과]	웃[웁]
웃다[웁:따]	있다[읷따]	젓[젇]	빳다[빷따]
꽃[꼇]	쫓다[쫓따]	숯[숯]	뵤다[뵷:따]
얏[압]	덜다[덜따]		

< 해 설 >

<음절끝소리규칙>

1.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뿐이다. 음절말의 위치에서 모든 장애음이 ‘ㄴ,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으로, 이때 평음화뿐만 아니라 폐쇄음화도 동시에 일어난다.

- 1)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교체로 볼 수 있고, 대표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중화로 볼 수도 있다.
- 2) 원리적으로는 음절말에서 불파화(不破化)가 일어나기 때문이며, 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 3) 다른 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음절말이라는 분절음의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자음 단독의 현상이다.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앉다[안따]	여덟[여덜]
넙다[넉따]	외곶[외곶]	핥다[할따]	값[갑]

다만, ‘뵈-’은 자음 앞에서 [뵈]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1) 뵈다[뵈:따] 뵈소[뵈:쏘] 뵈지[뵈:찌]
- 뵈는[뵈:는→뵈:는] 뵈게[뵈:께] 뵈고[뵈: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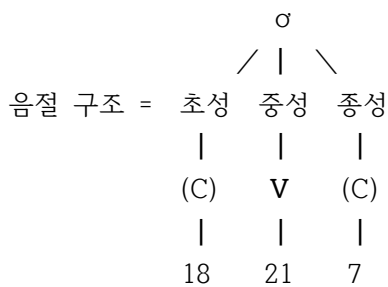
- (2)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동글다[넙똥글다]

< 해 설 >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1. 음절(音節)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또는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로 발음의 최소단위이다.

1) 음절구조제약 : 분절음이 음절을 구성하는 규칙



(1) 국어 음절의 필수 성분은 모음이다.

(2) 현대국어에서 초성과 종성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두개의 음절이 연결될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3) 현대국어의 경우 ‘ㅇ[h]’을 제외한 18자음이 초성이 될 수 있고, 종성에는 7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이 올 수 있다.

(4) 단모음과 이중모음 전부는 중성이 될 수 있다.

<참고> 중세국어에서는 초성과 종성의 위치에서 적어도 두 자음까지는 발음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음절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초성에 두 자음이 올 때에는 첫 자음은 ‘ㄴ’이어야 하고, 종성에 두 자음이 올 때는 첫 자음이 ‘ㄹ’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2) 국어에서는 모음만이 성절음이기 때문에, 음절의 수는 모음의 수와 일치한다.

예) ‘집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지바프로말근무리흐른다]’

<참고> 영어의 ‘milk’는 1음절. 우리말은 음절 구조상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과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없기 때문에, 연속되는 둘 이상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다. 이 단어를 굳이 한 음절로 발음하거나 적으려고 한다면 우리말 발음은 [밀] 또는 [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발음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음을 첨가하여 [밀크]라고 발음하게 된다. ‘strike, first’는 각각 1음절이지만 국어의 음절구조에 맞게 ‘스트라이크, 퍼스트’로 발음함.

2.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도 다른 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음절말이라는 분절음의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한 음운의 변동이다.
3. 7차 학교문법에서는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음절 끝소리 규칙’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으나 두 현상은 서로 다른 현상이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대치 현상에 속하고 음절 구조 제약 중 음절말에는 7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탈락 현상에 속하고, 음절 구조 제약 중 음절말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